

관리 탈피 '자율' 요구

조계종, 전통사찰보존법 개정 추진... 중첩규제 해소 주력

조계종이 전통사찰의 발전을 저해하는 중첩규제 해소를 위해 법령 개정에서 나선다.

총무원 기획실은 6월 13일 실무 브리핑을 열고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추진의 주요 골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의제를 통한 특례 조항을 신설해 허가사항 및 의견을 간소화하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의제는 본질을 갖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해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뜻한다. 기획실은 법률의 '의제' 기능을 통해 중첩 규제를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전사법 이외의 법령들의 불합리한 부분의 개정도 추진한다.

◆허가사항 간소화 = 기획실이 밝힌 개정안 추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중첩규제 해소를 위한 법률상 '의제' 기능이다. 현재 전통사찰은 보수 및 각종 행위 발생시 전통사찰보존법 뿐만 아니라 건축법, 자연공원법, 문화재 보호법 등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런 불합리한 상황 해소를 위해 기획실은 전사법에 따른 행위 허가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및 의제조항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건축법에 '전통사찰보

존법상 허가를 득한 사항은 예외로 한다'는 등의 조항이 신설되면 전사법 이외의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허가를 얻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또한 전통사찰보존법의 '제9조 허가사항' 중 전통사찰 행위에 대한 시·도지사의 허가사항 및 해당 행위의 법률을 관장하는 관계기관 장과의 협의조항은 일괄 삭제하도록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의제통해 중첩 규제 해소 강화 경내지, 주지 정의도 정비 대상

◆정의 개정 = 정부는 그동안 전통사찰보존법상 명시돼 있는 '경내지'를 사찰소유의 직접적 영향이 미치는 중심지역 토지로 축소 해석하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문제는 특히 법적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사찰에 불합리하게 적용돼 왔다. 기획실은 '경내지'라는 표현 대신 '전통사찰보존지'라는 개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찰토지 전체를 전통사찰보존지로 해석

하고 시·도지사가 구역 설정을 고시하는 것을 의무화 하도록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동산'이란 용어도 '문화유산'으로 개념을 확대해 전통사찰에 속한 불교 건축, 조각, 회화 등 유형문화유산과 불교의례, 예능, 전통문화행사 등 무형 문화유산이 포함되도록 협의할 계획이다.

또한 토지이용의 규제에 따른 갈등 해소를 위해 전통사찰보존구역

행과 관련된 절차를 시행령으로 구체화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전사법 상 '사찰을 운영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승려'라고 규정돼 있는 주지에 대한 정의도 개정 대상이다. 기획실은 현행법상의 주지에 대한 규정 대신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관장하는 역할로 확대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독소조항 삭제 = 기획실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전사법 내 독소조항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불교계는 그동안 전사법의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전통사찰 재산처분 허가', '재산목록의 작성·비치 조항' 등이 오히려 전통사찰을 규제할 뿐이라며 '독소조항'으로 지적해 왔다.

'전통사찰문화연구원'은 연구·조사와 설립기관의 지원 및 위임조항을 신설하고,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별도항으로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전통사찰의 재산처분과 관련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허가 조항을 삭제하고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대표자의 승인조항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기범 기자

"대정부 관계 변한 것 하나도 없다"

법승 스님,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 '공개편지'



공개편지를 6월 14일 발표했다.

법승 스님은 대정부 관계가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없으며 5대 결사는 절망적이라고 지적했다.

스님은 "불교계는 외부에서 불교를 격정하는 처지로 전락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집행부는 결사

를 주장한 이래 구체적 실천방안을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승 스님은 또 "결사 주장의 실제적 배경이 된 대정부와의 관계 역시 현실적으로 변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정부와의 단절은 문제가 있기에 차치하더라도 5대 결사는 절망만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중도들은 33대 집행부의 '불교중흥' '자성과 쇄신결사'에 본격적으로 불신과 의혹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며 종단 집행부가 구호만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스님은 이런 중도들의 분노가

총무원장 스님을 향하게 될 것이라며 조계종이 혁신적 변화와 사회변화를 이끌어내는 통찰력을 갖고 명확한 비전 제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이를 위해 7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법승 스님은 해결 방안으로 종단 권력의 사부대중 배분, 이사를 겸비한 현대적 경영능력 발휘, 계파 불식한 자유로운 인재등용, 종지구현 천착, 약속의 충실한 이행, 불자 존중, 불교 안에서 종단문제 해법 모색 등을 제안했다.

박기범 기자

국방부, 종교음악 사용 금지

현충일 기념행사에서 찬송가를 연주해 논란을 빚은 국방부가 군 행사에서 찬송가 등 종교음악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6월 10일 '군 행사 군악연주 관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또, 전 부대에 "군 관련 공식행사에서 종교관련 음악을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시달리고, 군악대 교범을 새로 만들어 배포기로 했다.

조동섭 기자



"심려끼쳐 죄송하다"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민족문화수호에 대한 유감의 뜻을 전하고 템플스테이의 특화와 연등축제 무형문화재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 장관은 자승 스님에게 "그동안 염려를 끼쳐 죄송하다. 저희의 정성이 부족해서 벌어진 일이다. 전통문화 보존은 모든 활동에 있어 근간이 되는 일이다. 종단의 노력에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정신문화 운동으로 승화하자"

해인사 끝으로 교구본사결의대회 회향



6월 14일 합천 해인사에서 열린 제12교구 민족문화수호결의대회의 모습.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에서 열려온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가 합천 해인사 대회를 끝으로 회향했다.

합천 해인사(주지 선거)는 6월 14일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제12교구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봉행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종정 법전 스님은 법어를 통해 "모든 중도는 자급의 자성과 쇄신의 결사가 전국민의 정신문화운동으로 승화되는 그날 까지 불퇴전의 자세로 여일정진(如一精進)토록 하자"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격려사에서 "결의대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5대결사에 실천이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해인사 주지 선거 스님은 대회를 통해 "해인사는 비로자나 부처님이 설하시고 문수보살이 전해주시신 6대서원을 근본으로 하여 5대결사를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고 다짐했다.

이날 해인사는 1일 교구 토론회를 통해 채택한 '민족문화수호와 자성과 쇄신을 위한 해인총림 사부대중 8대강령'을 발표했다. 8대강령은 ▷수행자로서 정체성과 수행여건을 마련하여 일체 중생이 성불할 때까지 용맹정진하겠다 ▷자비심과 연기 사상을 바탕으로 대중공동의 행복을 찾아 기꺼이 '나'를 던지겠다 ▷낙태와 사형, 자살 등 모든 인위적 살생을 반대하고, 종교차별 적극 감시하며, 평화의 중요성을 고양시키겠다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불교생명사상 현대화하겠다 ▷북지와 봉사의 삶을 적극 실천하겠다 ▷다양한 문화가 현대 사회에서 조화롭게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2011년 대장경 천년세계문화축전이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해인아트프로젝트의 회향이다.

조동섭 기자

조계종, 일본 센다이 7월 8일, 합동천도제

조계종은 7월 8일 일본 센다이(仙台)를 방문해 일본 조동종과 함께 '동일본 대지진 희생자 합동 위령 천도제'를 봉행한다. 천도제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사사키 코이치 조동종 종무총장 등 불교계 인사와 유가족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 조계종은 이번 지진으로 크게 훼손된 센다이 창림사(昌林寺)와 이재민 구호소 등을 찾아 현지 주민들을 위로하는 한편 구호성금 3200만원(4억3000만원)을 비정부기구(NGO)와 동북조선초중등학교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조동섭 기자

박구원 만평



鏡峰大宗師 29週期 追慕法會

맑고 푸른 기운,
영축 산야를 넘나들며
성하의 계절을 재촉합니다.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 호국선원에서는
근대의 선지식으로 후학들을 제접하셨던
경봉 대종사의 29주기 추모다례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제방의 대덕 스님들과 사부 대중을 뵈시고
정중한 추모법회를 봉행하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걸음하시어 귀한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5년 6월 좋은 날

일시 | 불기 2555(2011)년 6월 28일(음 5.27) 화요일 오전 10시
장소 | 영축총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무량수각
문의 | (055) 382-7083

경봉문도회장 명정 극락호국선원 신도회장 정홍준 합장

2011년도 경봉장학회 선발공고

재단법인 조계종 경봉장학회는 2011년도 장학생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아 래-----

- 박 사 과 정 1명
- 석 사 과 정 6명
- 학사과정 (동국대) 9명
- 학사과정 (중앙승가대) 13명
- 통도사강원 8명
- 선원·을원 4개소

경봉대종사 제29주기 추모법회에서 장학금 수여식이 봉행되오니, 선발된 장학생은 추모법회에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경봉장학회 이사장 원명

